

윤구병 <함과 됨>

제12강 - 삶의 주체와 자율성
(1교시)

◆ 삶과 생명체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봉기해서 혁명이 성공한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회가 전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주의에 기대서 한 시대를 변형시키려고 해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게 아옌데 정권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엔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류 혁명의 거점은 늘 농촌이었습니다. 농촌이 다 무너져버리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혁명가도 먹어야 삽니다. 우리나라에서 빨치산들이 지리산에서도 활동하고 회문산에서도 활동하고 하다못해 변산에서도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전부 무너져 내린 이유가 한겨울에 산악에 갇혀 식량을 구할 수 없어 무너져 내린 경우죠. 전쟁을 벌이려면 추수기에 속전속결해야 합니다.

제가 변산에서 십여 년 이상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무가 하는 말도 알아듣게 되고, 물고기가 하는 말도 알아듣게 되고, 들에 나가서 벌씨들이 수군거리는 말도 알아듣게 되고 그랬어요. 변산은 소나무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해안가에 해송도 많고 순양목 종류인데 적송이라고 하기도하고 홍송이라고 하기도 하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몽고군이 일본 정벌을 나갈 때 태안반도에서 결이 곱고 탄탄하고 벌레도 안 먹어, 배를 만드는 데 참 좋기 때문에 전함 삼백 척을 소나무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변산에선 사백 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람결을 잘 몰라 일본에 갔을 때 마침 태풍이 불어 칠백 척 전함이 전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하느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바람을 보내줬다 하여 가미가제, 신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미가제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차 세계대전에 비행기에다가 인간 폭탄이 돼서 지붕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가미가제 특공대가 생겨났다고 그러죠.

어쨌든 요즘에 변산에 아열대성 기후가 되면서 대나무가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나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도토리를 떨어줍니다. 집 근처의 상수리나무를 보면 성한 것이 없고, 커다란 구멍 같은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돌멩이로 때리거나, 쇠파치로 치거나 나무를 흔들어서 도토리가 떨어지면 주우려고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한 해에도 수천 알의 도토리를 땅으로 떨어뜨는데, 제가 상수리나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산지가 70%인데 전부 상수리나무로 덮으려 그래?’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러면 해마다 뭐하러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 했더니 자기가 죽을 때쯤 거기서 한두 그루 자라서 자기를 대신해 종이 유지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요.

벌써도 마찬가지죠, 한번 심을 때 두 알 세 알 심으면 스무 포기로 늘어나는데 한 포기당 백 알 넘게 달리고 풍년에는 벌써 하나에 천 개도 달리고 이천 개도 달리고 그러죠, 그래서 ‘야 들판 전부를 니 종자로 덮으려 그래?’ 했더니 아니라 그래요. 쥐도 먹고, 새도 먹고, 당신도 먹고 우리 종 유지하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송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 대서양까지 온 바다를 전부 송어로 덮을 생각이나?’ 했더니 아니라 그러죠. 그중에 한두 마리만 남아서 자기 종을 유지시켜 주면 그만이다 해요. ‘그럼 나머지는 뭐하려고 하니?’ 하면 자기 몸을 던져 다른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씨앗들을 떨구는 거라 합니다. 우리가 삼시 세끼 먹는 반찬들이 전부 다른 생명체의 생체보시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만나기 쉽지도 않지만, 눈빛으로 만나고 몸으로 만나고 서로 뜻이 맞는 것으로도 만났다고 생각하고, 아주 성급하게 뜻이 조금만 같으면 ‘야, 우리 조직하자’ 해서 이상한 조직을 만들고, 그래도 <수유+너머>는 건강한 조직이에요. 진정한 만남이라는 게 밥통 속에서 이루어지죠. 위장에서 다른 생명체를 받아들이고 다른 생명체의 위장으로 자기의 생명력을 보낸단 말이죠.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틀림없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생산력이라는 건 없어요. 생산력이 늘 유한해요? 유기물의 세계에서도 무한이라는 게 없어요. 도시에서는 5%의 생산력만 늘어나도 나일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이런 소리를 하는데 유기물은 축적이 안 돼요. 곡식의 씨앗을 이년만 묵혀버리면 발화율이 현저히 떨어져버려서 곡식 구실을 거의 못 합니다. 무한축적이 불가능해서 유기물이라 썩어버리니까 싫든 좋든 나눠야 해요.

그런데 생산력의 무한한 발전과 무한한 축적에는 썩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전부 부동산에서 부동산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화폐나 유가증권 같은 것으로 되면서 종이쪽지 하나에 수억, 수십억의 자산도 축적이 가능해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자손만대를 물려줄 사유재산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폭력적인 국가기구가 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도시 사람들은 답변할 길이 없어요. 도시공간에서 사람들만 사니까 ‘착취하고 살거나 착취당하면서 살지 뭐~’, ‘주인이나 노예로 살지 뭐~’ 이런 대답밖에 없어요. 전체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그물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길이 없어서 도시사람들은 덮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속의

세계를 실제 세계라고 자기최면을 겁니다. 정신적인 유목민들이 우글거리면서 의식과 의식의 평온을 질주하고 있어요. 실재하는 평온이 아니라 등질화된 의식 공간을 질주하면서 나는 지금 말을 타고 달리고 있다고 상상을 해요. 어쨌든 밥상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라오는 것이 다른 생명체의 생명이다. 살아있는 채로 나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이것을 먹고 뭘 해야 할지 성찰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뎃에 갇혀요.

윤구병 <합과 됨>

제12강 - 삶의 주체와 자율성
(2교시)

◆ 주체성과 자율성

제가 자유를 이야기하면 ‘사회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자유주의자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에는 결이 여럿입니다. 노예소유주의 자유 개념이 있고, 부르주아 자유 개념이 있고, 지주들의 자유 개념이 있고, 자본가의 자유 개념이 있고, 자유들이 서로 개념이 달라요. 무엇을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자본주의를 자본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가 하도 좋으니까, 저마다 자기 체제, 자기가 신봉하는 이념에 민주도 끌어다 놓고 자유도 끌어다 놓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자유가 뭐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추상적인 것 말고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소박한 것들을 생각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고, 신체의 자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전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추석이나 설에 ‘어머님, 미안해요.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이번에는 못 내려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철야하죠? 고향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여행의 자유도 없고 고향 찾아 갈 자유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종만 있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아주 명쾌하게 갈라지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쓴 유명한 찰스 램이 한 이야기입니다.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것도 없고 있는 놈과 없는 놈, 딱 두 종류로 구별이 된다. 있는 놈은 다 있고, 없는 놈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없는 놈이라 그래요~ 존재조차 없는 거예요.

스탠포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서 죄수 역할을 자원을 했던 말이죠. 아홉 명이 죄수로 있고, 열두 명이 간수 역할로 있는데, 네 명씩 삼교대로 간수 역을 맡게 됩니다. 간수가 되는 사람은 죄수의 한 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상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없애야 하고, 등질적인 죄수 집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없애서 비인간화시키는 것이 간수의 임무예요. 감옥 체제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죄수들을 비인간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없앨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죄수들에게서 심각한 시간 왜곡 현상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의 경우 생명의 시간 가운데 자연의 시간이 우리 몸에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쥐들에게 실험을 해봤는데, 같은 용량의 인슐린 주사를 시간마다 달리 투여 하는데 어느 시간에 투여하면 백퍼센트 죽고, 똑같은 양인데 어느 시간에 투여하면 같은 양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몸 안의 시계가 24시간 진행됨에 따라 생명의 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선 생명의 주기에 대해서 생명의 시간을 등질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서 간수 역을 맡은 사람은 교대시간에 무조건 호루라기를 불어서 일으키고 팔굽혀펴기 등 체제에 순응하고 권위에 순응하도록 온갖 종류의 벌들을 죄수들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개개인의 개성이 없다, 감옥 안에서 일률적으로 밥은 몇 분 만에 먹고 소변보는 시간은 몇 분 안에 끝내라, 이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자원했었던 선량한 중산층의 대학생이, 처음에는 모두 죄수로 자원하겠다고 하고 간수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돈을 받고 계약을 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진짜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와요. 그리고 간수들은 점점 잔인해지고, 나중에는 취미 삼아서 성적인 학대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라크에서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사람들 목에다 줄을 달아서 끌고 다니고 성적인 모욕을 주고 그 사진을 찍어서 모욕을 줬습니다. 이슬람에서의 성적인 모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목숨은 바칠망정 그러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제일 약점이니까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 잔혹한 짓을 태연하게 시킵니다.

그 아이들이 스탠포드에서 나오는 20대 초반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일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거죠. 나중에 하루 감옥살이하는 데 아르바이트비로 15달러 지급하겠다고 해서 학생들을 모집한 거니까, 아홉 명 중 네 명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위원회에서 ‘너 그냥 이쯤에서 그냥 돈 더 받고 있을 거야, 돈 안 받고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 그랬더니 두 명 빼고 다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박탈이 인간에게는 꼭 비인간화, 물개성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유 박탈 가운데 가장 광범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공간도 등질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시간도 등질적인 시간으로 만들어 생명의 시간 가운데 자연의 시간을 죄다 없애버리고 전부 인공의 시간으로 바꿔 전체 우주체계, 아주 작은 소립자 단계에서부터 아주 큰 우주까지 전부 등질적인 시공간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고 합의되는 세계, 수

학공식을 통해서 확정된 세계를 진짜 우주로 감쪽같이 바꿔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체물리학이나 수학을 해도 이 덧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흰 공간이 됐든, 무한히 확산되는 공간이 됐든 날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지든, 달이 기우는 시간이든,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공전하는 시간이든 잘라내는 기준에 상관없이 내용을 채우는 것들은 다 빼버립니다. 그래야 계산 됩니다.

아날로그 세계는 늘 무규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수식으로 나오지 않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수직화 된 게 아니면 도시사회에서 삶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사회에서는 서로와 서로의 삶을 인간끼리 통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는 세계에서는 맨 밑바닥에서 맨 위까지 위계질서가 반드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빅브라더가 있고 맨 아래에는 노바디(아무것도 아닌 사람)로 위계질서가 생기는데 이런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을 우리 왼쪽 뇌에서 합니다. 분석하고 조직하는 것을 왼쪽 뇌에서 하는데, 인간 수컷들이 반편이들이거든요, 중추가 왼쪽 뇌만 몰려있어요. 여자들은 이야기할 때 양쪽 뇌가 작동하지만 남자들은 한쪽 밖에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직하면 주옥- 늘어서고, 정치이야기 하면 죽습니다. 언젠가 더마초가 덜 마초들에게 그 글을 쓰려고 했어요. (일동 웃음) 그래서 겨우 오천 년만 해먹고 다시 모계사회로 되돌아가야 하느냐... 나야 되돌아가기 전에 죽어서 상관없지만 너희들은 참 불쌍하다.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자율성이란 것은 생명의 시간 속에서만 싹트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생명의 시간은 자연계의 여러 생명체와 연관을 해서 살아갈 때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는데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되는 강아지풀도 누가 언제 꽃 피워라 열매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싹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죽을 때는 알아서 죽고 또 땅에 묻힌다.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경계했었던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스(hybris), 오만이라는 뜻이죠. 인간의 오만이 극대화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하늘의 흥내를 내죠? 생명체를 자기 마음대로 변이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사기도 치죠? 돼지 장기로 사람 장기를 대신해서 프랑켄슈타인처럼 키워도 끄떡없다. 돼지 장기를 쓰면 사람이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못하는지 몰라요. 물질체계에서는 상호교환이 가능하고 가역성이 성립이 되지만, 생명계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생체조직하고 물질조직하고 다르다는 것을 생각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장기이식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저한테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장기이식 하지 않을 거냐고, 제가 착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일동 웃음) 장기기증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눈을 번쩍 뜨게 만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한테 갑자기 극도의 증오심을 느

끼게 될 때 칼로 폭 하고 쏘실지 어떻게 알아요? 장기 이식 받은 사람이 꼭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좋은 데만 쓰라는 법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게 쓰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가 장기이식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있는 나라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눈알도 빼고 콩팥도 빼는데 혈안이 돼 있는 세상입니다. 죽을 때 기증한 장기가 꼭 성냥팔이 소녀한테 가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어서 장기 기증하겠다고 하면 착하단 말 들을 줄 알고 있지만, 죽어버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죽을 때 내 몸, 내 머리 참 잘 쓰고 갔다 획~ 버리고 가면 그만이지. 실제로 살아생전에 잘 쓰고 갔다 하고 버리면 그만이고 버리면 누가 주워서 어떻게 한들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교 사람들은 수혈과 헌혈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이기적인 동기고 종교적인 편견에 의해서만 그렇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전엔 걸핏하면 수혈하고 헌혈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B형 간염을 걸렸어서 자꾸 복제되는 게 있어서 못 쓴다고 적십자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회가 전부 그것이 옳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사회가 전부 그르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받아들이는데 내적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기 몸과 마음을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상황과 체제에 맞서서 자유로운 공간과 시간을 열어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